

# 대형주만 활황... 코스피 양극화 깊어진다

### 대형주 26.26% 오를때 소형주는 4.28% 하락

### 반도체 중심 전기·전자 업종 올 52.53% 상승

직장인 최모(52)씨는 주식시장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만 세상 얘기 같다"는 생각을 한다. 최씨는 "지난해부터 전망이 좋다는 상장사의 영업실적을 꼼꼼하게 살펴가며 투자했다"며 "실제로 기업의 실적은 좋은데도 주가는 대형주만 오른다"고 울상을 지었다.

최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지만 최씨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소형주는 오히려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증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또 '잘 나가는' 업종에서도 대형주만 혜택을 보는 '이중 양극화'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거래소는 추석 연휴 이후 4거래일

동안 대형주지수(코스피시장 시가총액 1~100위 종목)가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1.71% 상승하면서 코스피지수 상승률(1.64%)을 웃돌았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중형주지수(시총 101~300위 종목) 상승률은 1.35%에 그쳤다. 소형주지수(시총 301위 이하 종목)는 되레 0.13% 하락했다.

올해 초 대비로 보면 대형주지수 상승률(26.26%)과 중형주(4.09%), 소형주(-4.28%)의 차이는 더 뚜렷하다.

시가총액으로 따져봐도 일부 기업이나 그룹에 대한 쏠림이 심각하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 4개가 삼성그룹이다. 올 들어 코스피는 22.1% 상승했지만 삼성그룹 4개 종목을 제외한 상승률은 16.7%로

5%포인트 이상 상승폭이 줄어든다.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 간 격차도 크다. 코스피지수가 올해 들어 22%대의 오름세를 보이는 동안 코스닥지수는 4%대 상승에 그쳤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업종 사이에서도 확인된다. 올해 들어 반도체 중심의 전기·전자 업종은 52.53%나 급등한 반면 운수장비 업종은 6.66% 하락했고, 유통업은 3.94% 오르는 데 그쳤다.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세는 상장사들의 '좋은 성적표' 덕분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중의 양극화 현상이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오는 23일부터 미국에서 알파벳, 아마존 등 정보기술(IT)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기대감에 따른 전기·전자 업종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외국인과 기관이 주로 투자하는 대형주와 달리 개인 투

자자들이 집중된 중소형주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증시 양극화와 함께 일명 '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상장사 10곳 중 한 곳은 올해 주식시장에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가 올 1월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종목별 사상 최고가(중가 기준) 경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상장사 2023개(유가증권시장 852개, 코스닥시장 1171개) 중 237곳(11.7%)이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사상 최고가를 갱신한 80개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29.7%로,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상승률(21.3%)을 웃돌았다. 사상 최고가를 갱신한 157개 코스닥시장 종목은 평균 26.2% 올라 코스닥지수 상승률(4.7%)을 훌쩍 넘어섰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80.05 (+6.43)

↑ 금리 (국고채 3년) 1.93% (+0.01)

↓ 코스닥 659.41 (-3.67)

↓ 환율 (USD) 1127.80원 (-1.10)

## 광주 산단 기업 내일 채용박람회

강소 중소기업 20개사·구직자 400여명 참여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방재성)는 광주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오는 18일 산단공 광주전남본부 8층 대회의실에서 '광주드림잡고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산단공 광주전남 지역본부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광산구와, 광주제대군 인지원센터, 광주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광주첨단경영자협의회가 후원한다.

이날 행사는 광주지역 산업단지에서 성장하고 있는 강소 중소기업 20개사 이상이 참여하며 구직자 4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가 기업은 현장에서 인사담당자가

직접 서류를 받고 면접까지 진행하고 현장에서의 구인구직 뿐만 아니라 참여 구직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취업정보 제공과 면접을 주선하는 사후관리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구직자들은 전문 취업컨설턴트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클리닉, 면접클리닉 등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방재성 산단공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앞으로 산업단지 중심의 맞춤형 인력양성체계를 더욱 확고히 구축해 산학일체형 현장중심교육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인력개선 및 진로체험 기업투어를 적극 추진하여 산업단지 내 우수한 중소기업에 지역의 인재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 070-8895-7910.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한전, 9개국에 에너지 신기술 전수 에너지 공기업 최초 글로벌 교육과정 개설

한국전력(사장 조원익)은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가나, 대만, 말레이시아 등 총 9개국 20명의 전력회사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신기술분야 글로벌 교육과정'을 에너지 공기업 최초로 개설했다.

한전은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Smart Grid, ESS(에너지 저장 장치), AMI(지능형 계량 인프라), IoT, Big Data, HVDC(초고압 직류 송전)' 등 한전이 보유한 선진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 본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전력설비들을 교육생들이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한전이 축적한 전력에너지 분야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한전은 신기술체제 및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에너지 시장 환경속에서 미래 먹거리 창출과 에너지 신사업을 선도하기 위하여 에너지 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세계를 무대로 에너지 신사업을



한전 및 글로벌 전력회사 관리자들이 에너지 신기술분야 글로벌 교육과정 입교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전 제공>

확대해 나가고 있다.

조원익 한전 사장은 "이번 신기술 글로벌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매년 본 교육과정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점진적으로 한전의 글로벌 시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

이라며 에너지 분야 글로벌 유틸리티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이어나갈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한전은 2003년부터 전세계 32개국을 대상으로 송변전 및 배전분야 94개 교육과정을 통해 약 1200명의 전력

분야 해외교육생을 배출해 왔으며, 이번 '에너지 신기술분야 글로벌 교육과정'을 통해 에너지 분야 글로벌 교육기관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최재호기자 lion@

## 광주 중장년 맞춤 일자리 찾기

노사발전재단 일자리센터 오늘 '구인구직의 날'

노사발전재단 광주중장년일자리센터(소장 이명숙)는 17일 광주시 광산구 평동 비즈니스센터에서 '구인구직의 날' 행사를 연다.

구직을 원하는 중장년들이 맞춤형 일자리를 찾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현장에서 면접을 통해 채용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중장년일자리센터는 지난 2016년 2월 설립 이래 최근까지 지역 중장년층 구직 활동과 연관 기업체 구인 활동을 지

원해 900여명의 재취업 실적을 거뒀다.

한편 기업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는 노사발전재단 광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 대상 생애경력설계서비스부터 퇴직예정근로자와 구직자를 위한 퇴직지원프로그램과 재도입 프로그램 등 중장년층에 특화된 맞춤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문의 062-531-5712.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익산국토청 건설안전 우수사례 공모

내달 17일까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건설 재해율을 낮추고 건설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건설안전 우수사례(아이디어 포함)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건설 재해율을 낮추고 건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호남권 건설안전협의회 주관으로 시행되며, 건설현장 종사자는 물론 학생과 일반인 등 건설

안전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기간은 오는 11월 17일까지이며 건설현장 제도 및 안전시설물 보완 등 안전 개선 사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면 가능하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응모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park4472@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순서로 우수작 3점을 선정한다. 문의 063-850-9427. /김대성기자bigkim@

## 유통업 체감경기 다시 냉각

광주상의 107개 업체 조사...경기전망 19P 하락 '82'

지역 4분기 소매유통업 체감경기가 1분기 만에 다시 부정적으로 전망됐다.

16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광주·전남 지역 107개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 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102)보다 19포인트 하락한 '82'로 집계됐다.

체감경기 전망지수가 1분기 만에 다시 기준치(100) 밑으로 하락한 데는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위축 불안감과 서민 물가 상승, 계절요인에 따른 실적부진 우려가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RBSI(Retail Business Survey Index)는 유통업체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

지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업체별로 보면, 대형업체와 소형업체 모두 4분기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대형업체인 백화점(132→85)과 대형마트(84→79)는 소비침체 속에 트렌드 변화와 아울렛, 온라인 쇼핑몰 등 경쟁체질의 부각, 규제 강화 등으로 업황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부진요인으로 꼽았다. 동네상권인 슈퍼마켓(94→96)은 각종

생활과 서비스 물가 상승세가 소비자들의 구매위축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했으며, 편의점(93→87)은 경쟁점포 과다와 쌀쌀한 날씨로 인한 계절제품의 판매 감소가 업황 부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4분기 경영실적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부진(46.8%)'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업태간 경쟁격화(16.1%), 기타(12.9%), 업태내 경쟁심화(11.3%), 가격 상승(8.1%), 판촉·할인(4.3%), 광고확대(0.5%) 순으로 나타났다. /김대성기자bigkim@

# 슬라브 옥상 스틸 방수 단열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 패널

아파트, 학교, 주택,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옥상 시공

- ▶ 방수, 단열 이중효과!
- ▶ 냉·난방비 절감효과!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합리적 가격, 단 한번 시공!

※ 무료 출장 견적내드립니다.

목포권, 순천·여수권 등 대리점 모집(영업 및 시공)

**TWIN 트윈스틸** (모던건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 45(신안동 478-18)

**H 010-9229-3530**  
**062-531-3530**

#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Step 1. 방수장리  
Step 2. 단열방수시트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홈페이지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징점

-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2/ 건축 내외장재 패터디자이너 잔 엔디나와의 클라보 디자인!
- 3/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찢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4/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만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2중안벽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